

# 전남 방언 ‘실경’과 ‘살강’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위 진 · 손 희 하 (전남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살강’의 어원과 변화 과정    |
| 2. ‘실경’의 어원과 변화 과정    | 3.1.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살강’ |
| 2.1.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실경’ | 3.2. 방언 자료에 나타난 ‘살강’  |
| 2.2. 방언 자료에 나타난 ‘실경’  | 4. 맺음말                |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전남 방언 ‘실경’과 ‘살강’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두 단어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실경’은 중앙어 ‘시렁’에 대응하는 전남 방언형이며, ‘살강’은 중앙어와 전남 방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고는 ‘실경(sylgəŋ)’과 ‘살강(salgəŋ)’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피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첫째 의문은 ‘실경’은 국어사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방언형을 음운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시렁’에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5-A00005)

대한 어원 분석은 ‘실경’의 ‘-기(-g-)’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승녕(1962, 66)과 안옥규(1989, 271)는 ‘시렁’을 ‘신-’의 어근 ‘신-’이 ‘ㄷ-ㄹ’교체에 의하여 ‘실-’로 변한 뒤에 접미사 ‘-영’이 붙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시렁’을 ‘실-+-영’으로 분석한다면, 방언형 ‘실경’을 음운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다. ‘실경’에 대한 언급은 남광우(1969, 145)와 최창렬(1993, 31~32)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실경’을 ‘시렁’에 ‘기’가 삽입된 형태로 보았다. 그러나 음운사에서는 ‘-기’를 삽입된 음운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본래 단어에 존재하던 ‘기’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탈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래서 이 분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김형규(1974, 5)는 ‘실경’을 ‘실다(載)’의 어간에 ‘-g ε(e)’ 접미사가 붙은 동명사 ‘[silgε(e)]’에 다시 ‘-əŋ’ 접미사를 붙인 형태로 설명하였다. 중앙어 ‘시렁’은 중간 ‘-g-’음이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실경 > 시렁’의 변화를 ‘-기(-g-)’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실게(silge)’에 ‘-영(-əŋ)’이 결합한 과정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실경’을 음운 변화 과정의 일부로 기술할 수 있도록, ‘실경’의 어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의문은 ‘실경’과 ‘살강’이 유사한 음절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어원에서 다른 형태로 분화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살강’의 어원에 대한 논의는 ‘살강’을 ‘실경 > 시렁’에서 변화한 단어로 분석한 최창렬(1993, 33~35)이 유일한 듯하며,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어원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우리말 어원사전』 1997) 본고는 ‘실경’과 ‘살강’이 기능적 유사성은 물론 음절구조도 ‘sV ilgV<sub>20</sub>’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두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단어의 관련성을 의미적,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의문을 풀기 위해서, 본고는 국어사 문헌과 방언 자료를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sup>1)</sup> 통시적 자료인 국어사 문헌은 특정

어휘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공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공시적 방언 자료는 통시적 문헌 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어형을 보완해 준다. 이런 까닭에 본고는 ‘실경’과 ‘살강’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음운사의 범위 안에서 ‘실경’을 기술할 수 있으며, ‘실경’과 ‘살강’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실경’의 어원과 변화 과정

### 2.1.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실경’

‘실경’은 실생활에서 빈번히 쓰는 주거 건축 용어가 아니어서, 연해류 문헌보다는 어휘 자료집에 주로 나타난다. ‘실경’과 관련한 형태를 국어사 문헌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실에

架 실에 가<1527훈몽자,중,007b>

架 실에 가<1576신유합,上,024b>

架 실에 가<1700유합영,015a>

(2) 실영

실영 가 (架)<1664유합칠,015a>

실영 가 架<1664유합원,015a>

실영 架<1880한불자,422>

1) 여기서 말하는 ‘국어사 문헌’이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4)와 손희하(2004)이다. 이들을 기초 자료로 삼아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잡작새; SynKDP 1.55판)>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원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래서 예문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또한 ‘방언 자료’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 방언 자료집』(1987)을 이른다.

(3) 시령<sup>2)</sup>

스나희와 거집이 웃혜며 시령을 혼 디 아니 햏야 駭히 남진의 웃거리  
와 혜예 드디 아니 햏며<1586소학언,02,050b>

시령 가 架<17XX왜유해,상,033a>

아리 나무를 세워 시령 띠듯 햏고 <1875이언해,1,038a>

대포 거는 시령과 후당창포의 뒷문에 불통 등 물 여러 가지로 햏스  
며 햏 짓딘지 <1875이언해,3,051a>

架 선반. 시령, 棚 시령<18XX광재물,器用,002b>

시령가 架<1895국한회,195>

架 시령 가, 집세울 가<1913부별첩019b>

시령 우에 잇던 햏 고리짖을 나려서 빨랫줄로 묶어 놓은 것과 바가지  
와 귀떨어진 용솥을 떼어서,<19XX상록수2,337>

‘실령’에 소급하는 중세국어 형태는 ‘실에’이다. 중세국어 표기법은 중성의 자음을 음절 경계의 조정에 의하여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실에’는 ‘ㄹ’을 연결하지 않고 선행음절의 중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실에’의 제2음절 초성 ‘ㅇ’이 자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성 ‘ㅇ’이 자음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ㅇ’이 무음가의 음운이 아닌 어떤 음에서 약화된 음운임을 시사한다.<sup>3)</sup> 그렇다면 제2음절 초성 ‘ㅇ’이 어떤 음에서 약화된 것인가가 문제가 될 터인데, 이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용언의 어근에 붙는 파생접사 ‘-게/개’는 유성음 사이에서 ‘ㄱ>ㅇ[ŋ]’로 약화한다. 즉 중세국어에서 ‘-게/개’는 ‘ㄹ’ 뒤에서 ‘놀애, 굴애, 결애, 몰애, 벌애’ 등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

2) 20세기 초기의 문헌인 『통학경편』에서는 ‘시령’이 ‘시령’으로 나타난다. ‘架 시령 가 <1916통학경, 021b>’ 그러나 이것은 오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본고의 예문에서 제외시켰다.

3) ‘실에’의 ‘ㅇ’을 특정 음운의 탈락 이후에 ‘ㅇ’이 일시적으로 위치를 차지하여 잠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도수희 1987, 86~103) 그런데 본고의 초점은 ‘실에’ 또는 뒤에 설명할 ‘실영’의 ‘ㅇ’이 ‘ㄱ’에서 약화·탈락한 음운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ㅇ’이 자음적 기능이 아닌 잠재적 기능을 한다고 보아도 본고의 논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므로 ‘실에’는 ‘실다(載)’의 어간 ‘실-’에 명사 파생 접사 ‘-게’가 결합한 파생어이며, 이때의 ‘-에’는 접사 ‘-게’의 ‘ㄱ’이 ‘ㄹ’ 뒤에서 약화한 형태이다. 그런데 ‘실에’는 16세기 후기에 나타난 ‘실영, 시령’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18세기 영장사본 『유합』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다.

‘실에’에 대체되는 형태가 ‘실영’과 ‘시령’이다. ‘실영’은 17세기 중기 문헌인 칠장사본 『유합』에 처음 나타나며 ‘시령’은 16세기 후기에 간행된 『소학언해』에서부터 출현한다. 문헌의 간행 시기를 보면 ‘시령’이 ‘실영’에 선행하는 듯 보이지만, ‘시령’보다 ‘실영’이 더 이른 형태이다. ‘실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영’의 제1음절 중성 ‘ㄹ’이 분철된 것은 제2음절 초성 ‘ㅇ’이 자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ㅇ’의 자음적 기능은 중세국어에서만 적용되는 음운현상이므로, ‘실영’은 17세기에 나타나지만 중세국어의 음운규칙을 유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시령’은 ‘ㅇ’의 자음적 기능이 소실된 것을 표기에 적용한 형태이다. 16세기 후기에 ‘ㅇ’의 자음적 기능이 소실되면서(이기문 1990, 15~29), ‘실영’의 제1음절 중성 ‘ㄹ’은 연결되어 ‘시령’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현대 중앙어 ‘시령’은 ‘실영 > 시령’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실 1>

국어사 문헌에서 전남방언 ‘실경’에 대응하는 형태는 ‘실에, 실영, 시령’이다. 전남 방언 ‘실경’의 존재 여부는 국어사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어사 문헌에서 전남 방언 ‘실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본고에게 ‘실영’은 간과할 수 없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논의에서처럼 ‘시령’의 어원을 ‘실-+-영’으로 분석한다면, 중세·근대국어 표기법인 연결 표기에 의해 ‘시령’으로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국어사 문헌에는 엄연히 ‘실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실-+-영’으로 어원을 재구한 경우에는 ‘실영’의 표기 형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실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는데, 본고는 ‘실영’의 이전 형태를 ‘실경’으로 상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영’의 ‘ㅇ’은 자음적 기능을 하므로, ‘ㅇ’은 어떤 음에서 약화한 음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ㄱ’ 뒤에서 약화한 음운은 ‘ㄱ’과 ‘ㅇ’ 뿐이며, ‘실영’의 전남 방언형이 ‘실경’인 사실로 미루어 ‘실영’의 ‘ㅇ’은 ‘ㄱ’에서 약화한 음운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실영’의 이전 형태는 ‘ㄱ’ 약화 현상을 적용받지 않은 ‘실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는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전남 방언 ‘실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워 보았다.

#### <추정 1>

전남 방언 ‘실경’은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실영, 시령’의 이전 형태이다.

그러나 ‘실경’이 국어사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고의 추정은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을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방언형을 통해 보완해 보고자 한다.

## 2.2. 방언 자료에 나타난 ‘실경’

‘시령’의 전국적 방언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경 기 도 : 시령(연천, 파주, 포천, 강화, 고양, 양주, 남양주, 실령, 김포, 용진, 화성, 평택), 실경(광주, 용인, 이천, 안성), 실령(가평, 양평, 여주), 시령까래, 실령까래(시흥), 실령까래(양평)

강 원 도 : 실경(철원, 인제, 고성, 양양, 명주), 실공(원성), 다리실경(고성), 선반(양구), 실광-령(화천, 양구, 인제, 춘성, 홍천, 명주, 영월, 정선, 삼척)

충청북도 : 실경(진천, 음성,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실령(증원), 실

광(제원, 단양)

충청남도 : 실령(서산), 실경(당진, 아산, 천원,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대덕, 금산), 시령(예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전라북도 : 시령(옥구, 익산, 완주,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실경(진안, 임실, 순창, 남원), 실경까래(장수), 선반(무주)

전라남도 : 시령(영광, 함평, 나주, 화순, 승주, 광양, 영암, 장흥), 실경(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산, 신안, 무안, 진도, 해남,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완도), 스령(강진), 시령까리(함평)

경상북도 : 시령(안동, 영천), 시랑(봉화, 영양, 영덕), 실강(영풍, 예천, 청송), 실경(상주, 의성, 금릉, 선산, 실경, 영일, 성주, 칠곡, 고령, 달성, 월성), 실건(경산), 실광(울진), 살강(문경), 자반(청도)

경상남도 : 실경(거창, 함천, 창녕, 밀양,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의창, 사천, 고성, 남해, 통영), 실건(울주, 김해, 양산, 거제)

제주도 : 선반, 실경<sup>4)</sup>

전남 방언 ‘실경’에 대응하는 전국적인 방언형은 ‘시령, 실령, 스령, 시랑, 실경, 실령, 실공, 실광, 실강, 실건, 시령까래, 실령까래, 실광까래, 실경까래, 살강, 선반, 자반’ 등이다. 이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실경’의 방언형

‘실경’형 : 실경, 실령, 실공, 실광, 실강, 실건

‘시령’형 : 시령, 실령, 스령, 시랑

‘시령 · 실경 + 가래’형 : 시령까래, 실령까래, 실광까래, 실경까래

이외의 단어 : 선반, 살강, 자반

전국적인 방언자료에서는 ‘실경’형과 ‘시령’형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4) 제주도의 ‘실경’은 『한국방언자료집』(1991)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조사자가 직접 서귀포를 중심으로 방언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실경’이란 형태가 확인되어 제시한 것이다.

다. 우선 ‘실경’형에는 ‘실경, 실령, 실공, 실광, 실강, 실견’이 있는데, 이들의 음절구조는  $C_1V_1C_2C_3V_2C_4$ 로,  $C_3$ 가 ‘ㄱ’인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시령’형에는 ‘시령, 실령, 스령, 시랑’이 포함되며, 음절구조는  $C_1V_1C_2V_2C_3$ 로 분석할 수 있다. 곧 ‘시령’형은  $C_2$ 가 ‘ㄹ’인 공통점을 지니,  $C_3$ 가 ‘ㄱ’인 ‘실경’형과 변별적이다.

‘실경’형과 ‘시령’형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시령’형은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경북 동해안 연안의 몇몇 지역에서 확인된다. 반면에 ‘실경’형은 중·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시령’형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를 이기갑(1986, 27~28, 111~112)은 ‘-ㄱ(-g-)’ 탈락의 개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개신의 전파가 서해안을 따라 우선 남북으로 퍼져 나간 다음 다시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서해안을 따라 방언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해와 서해 연안이 평야지대라는 지형적 특색에 있다. 평야지대는 원래 개신파가 쉽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북 동해안의 몇몇 지역에서 확인되는 ‘시령’형은 배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시령·실경 + 가래’형이 있는데, 이것은 ‘시령, 실경’에 ‘둥글고 길게 늘어 만든 토막’을 뜻하는 ‘가래’를 결합한 합성어이다. 중앙어에서 ‘시령가래’는 ‘시령을 매는 데 쓰는 긴 나무’를 뜻하는데, 일부 지역(경기도 시흥·양평, 전라북도 장수, 전라남도 함평)에서는 의미가 확대되어 ‘시령’까지 뜻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실경’을 강원도 양구와 제주도에서는 ‘선반’으로,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살강’으로 부르는데, 이는 ‘실경’과 ‘선반’, ‘살강’을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또한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자반’이라 하는데, 이 단어는 ‘선반’과 관련한 듯 보이지만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전국적 방언 자료에 나타난 ‘실경’의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t;사실 2&gt;

현재 관찰할 수 있는 방언 자료에서 전남 방언 ‘실경’에 대응하는 대표적 형태는 ‘실경’형과 ‘시령’형이다. ‘시령’형은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실경’형은 중·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시령’형에 비해 ‘실경’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본고에게 의미 있는 형태는 ‘실경’형이다. 국어사 문헌에서는 ‘실경’형이 나타나지 않아, ‘실영, 시령’의 이전 형태로 추정된 ‘실경’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언 자료에서는 ‘시령’형보다 ‘실경’형이 우세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방언 자료는 국어사 문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방언형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경’은 중세·근대국어에서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실경’은 국어사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어사에서는 존재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남 방언 ‘실경’은 ‘실영, 시령’에 앞선 형태로, ‘ㄹ’ 뒤에서 ‘ㄱ’이 약화·탈락되기 시작한 고려 후기 이전의 음운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sup>5)</sup>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본고는 전남 방언 ‘실경’에 대한 <추정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 &lt;추정 1’&gt;

전남 방언 ‘실경’은 ‘실영, 시령’에 소급하는 형태로, ‘ㄹ’ 뒤에서 ‘ㄱ’의 약화·탈락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형태이다. 따라서 전남 방언 ‘실경’은 ‘ㄱ’ 약화·탈락 현상이 발생한 고려 후기 이전의 음운 현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5) 이승재(1998, 244~258)는 ‘ㄹ’ 뒤에서 ‘ㄱ’이 약화·탈락한 현상이 고려 후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경’의 어원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에서는 ‘시령’으로 어원 분석을 하였으나, 본고는 ‘시령’의 앞선 형태로 ‘실경’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경’으로 어원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는 ‘실경’의 어원을 ‘실-’에 접사 ‘-경’이 결합한 파생어로 보고자 한다. 접사 ‘-경’을 상정한다면, 머리말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실경’의 어원을 ‘실- + -경’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승녕(1962, 66)·안옥규(1989, 271)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실경’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남광우(1969, 145)와 최창렬(1993, 31~32)에서 제기했던 ‘-기-’의 문제도 ‘기’ 약화·탈락으로 음운사의 범주 안에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김형규(1974, 5)에서 제시한 ‘실-+-게 + -영’의 복잡한 과정에 비해 ‘실- + 경’이란 단순한 과정으로 어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본고의 추정대로 ‘실경’의 어원을 ‘실- + -경’으로 재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실경’의 어근인 ‘실-’은 ‘ㄷ’ 변칙 동사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접사가 뒤에 오는 환경에서는 ‘ㄷ(< ㄷ)’로 변하지 않는다.(五百 술위에 種種엿 천량 신키<1459월인석,04,053b>) 그래서 ‘실-’에 ‘-경’이 결합한다면 ‘실경’으로 나타날 것이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의 원형을 ‘실-’로 볼 것인가, ‘신-’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중세국어에서 ‘ㄷ’ 변칙 용언은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는 ‘신-’으로, 모음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실-’의 원형을 ‘실-’로 보는 경우라면, 전남방언 ‘실경’은 ‘실-’의 원형인 ‘실-’에 ‘-경’이 결합한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실-’의 원형을 ‘신-’으로 보는 경우에서도 ‘실경’의 결합 과정은 설명이 가능하다. ‘실경’의 중세국어 형태인 ‘실에’를 보면, ‘실-’에 명사화 접사 ‘-에(< \*-게)’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때의 ‘실-’은 ‘ㄷ > ㄷ’로 변하여 ‘실에(< \*실게)’로 나타난다. 또한 ‘\*-기-’에서 약화한 꺾 · 사동접사 ‘-이-’가 ‘ㄷ’ 변칙 용언과 결합한 경우에도 ‘ㄷ’은 ‘ㄷ’로 변한다. 예를 들어 ‘든(步)’, ‘든(問)’에

피·사동접사를 결합한 경우 ‘들이-(두 ㅅ이 곶와 들여<1461능엄언 10, 030a>’와 ‘들이-(八萬 나라해 ㅁ솔히 盛호야 들기 소리 서르 들여 혼 ㄱ새 니셋고<1459월인 석,01,046a>’와 같이 ‘ㄷ > ㄹ’로 변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형태를 토대로 ‘실에’와 ‘들이-, 들이-’의 앞선 형태를 재구하면 “\*실게, \*들기-, \*들기-’가 된다. 이것은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ㄷ변칙 용언의 ‘ㄷ’이 자음과 결합한 환경에서도 ‘ㄹ’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 + -경’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신- > 실-’의 변화는 ‘ㄷ변칙 용언의 활용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실-’의 원형을 ‘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접사 ‘-경’을 국어사 문헌에서 거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접사 ‘-양, -영’은 ‘도량(돌- + -양), 고량(골+ -양), 마당(ㅁ+ -양), 구덩이(군+ -영+ -이), 구멍(구무+ -영)’ 등과 같이 생산적이지만 ‘-경’이 결합된 합성어는 거의 없다.<sup>6)</sup> 그러나 공시적 자료에 ‘-강/-경’을 상정할 수 있는 방언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도량은 경북 칠곡·경산·영천·월성에서 ‘돌강’으로 발음되며, 칠곡에서는 ‘돌강 > 도량’으로 변화하고 있다. ‘돌강’에서 ‘도량’의 변화 과정을 음운론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강/-경’의 접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곧 ‘도량’은 ‘돌- + -강’이 결합한 후에 ‘ㄹ’ 뒤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이고, 경북의 ‘돌강’은 ‘ㄹ’ 뒤에서 ‘ㄱ’이 탈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ㄱ’이 ‘ㄷ’으로 격음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원도 화천·양양·횡성·평창·명주에서는 ‘가랑비’를 ‘갈강비’로 발음한다. ‘가랑비’는 ‘ㄱ’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이때의 ‘가랑’도 ‘ㄱ’과 ‘-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랑비’의 방언형으로 ‘갈강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랑’의 어원은 ‘ㄱ’과 ‘-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방언형으로 존재하는 ‘돌강, 갈강비’는 접사 ‘-강/-경’의 존재를 뒷받침해 준다.

이상의 논거를 토대로 본고는 ‘실강’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재구하고자

6)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어원 분석을 참고한 것임.

한다.

<추정 2>

‘실경’의 어원은 ‘실-’에 접사 ‘-경’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3. ‘살강’의 어원과 변화 과정

#### 3.1.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살강’

‘살강’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어서, 국어사 문헌에서 대응하는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현 빈도도 매우 낮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사랑

器架 사랑<1748동문해,하,015b>

器架 사랑<1768몽유하,011a>

椀架 사랑<1778방언유,성부방언,011a>

(6) 살강, 살광<sup>7)</sup>

器架 살강<18XX광재물,飮食,001b>

庖 살광<18XX광재물,火,001b>

국어사 문헌에서 ‘살강’에 소급하는 형태는 ‘사랑, 살강, 살광’이다. ‘사랑’은 18세기 중기에 간행된 『동문유해』에서 처음 출현하며, ‘살강’, ‘살광’은 19세기 문헌인 『광재물보』에서부터 나타난다. 사랑, 살강은 실영, 시령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확인된다.

7) ‘살강, 살광’은 지시하는 의미가 ‘器架, 庖’로 모두 ‘살강’을 뜻하고, 본고의 논점은 ‘-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보다 ‘살강’이 더 늦은 시기에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시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ㄹ’ 뒤의 ‘ㄱ’은 고려 후기부터 약화되어 중세국어에서는 ‘ㅇ’으로 나타나며, 16세기 후기부터는 ‘ㅇ’마저 탈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도 ‘ㄹ’ 뒤에서 ‘ㄱ’을 유지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표기가 ‘사랑’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세기에는 ‘ㄱ’ 탈락 현상을 적용하지 않은 ‘살강(살광)’이 출현한다.

이를 정리하면 <사실 3>과 같다.

### <사실 3>

국어사 문헌에서 ‘살강’에 대응하는 형태로는 ‘사랑, 살강, 살광’이 있다. ‘사랑’보다 늦은 시기의 문헌에 ‘ㄹ’ 뒤에서 ‘ㄱ’을 유지한 ‘살강’이 출현한다.

이와 같이 ‘살강’이 ‘사랑’보다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난 이유는 ‘살강’이 음운 규칙이 생산성을 잃은 후에 새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진호(2003, 211)는 어떤 음운규칙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생산성을 잃어버리면 그 규칙이 적용된 합성어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합성어가 형성되는 일이 있는데, 이 때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에는 기존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ㅂ’ 유성마찰음화의 적용을 받은 ‘갈뿔’과 그렇지 않은 ‘갈뼉’의 관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갈뼉’은 ‘갈뿔’보다 먼저 출현하거나 적어도 동시대에 출현해야 하는데 ‘갈뼉’은 ‘갈뿔’보다 지나치게 늦게 나타난다. ‘ㅂ’ 유성마찰음화가 중세국어시기에 이미 생산성을 잃어버린 음운규칙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갈뿔’보다 늦게 나타난 ‘갈뼉’은 후대에 새로 형성된 합성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살강’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ㄹ’ 뒤의 ‘ㄱ’ 약화·탈락 현상은 중세국어의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필수 규칙이었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생산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사랑’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한 ‘살강’도

‘ㄱ’ 약화·탈락 현상이 생산성을 잃은 후에 후대의 언어사용자가 새로 형성한 합성어로 볼 수 있다.<sup>8)</sup>

본고의 추측대로 ‘살강’이 후대에 형성된 합성어라면 ‘살강’은 ‘\*살+강’이 결합한 형태이다. ‘사랑’과 ‘살강’의 공통 어근이 ‘\*살’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형태는 ‘-강’이다. ‘\*살-’의 의미는 분석하기 어렵지만, ‘-강’은 ‘실경’의 ‘-경’과 형태와 기능이 유사해서 ‘-경’과 같은 접사로 판단된다.

최창렬(1993, 33~35)은 ‘살강’의 어원을 ‘덧살 실경’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경’의 ‘실’이 ‘살’로, 모음조화에 의해 ‘경’이 ‘강’으로 바뀌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창렬의 어원 분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강’이 ‘실경’에서 의미 분화된 단어라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국어사 문헌에서 ‘실영, 시령’은 16세기 후기부터 나타나지만 ‘사랑, 살강’은 18세기부터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영·시령’과 ‘사랑·살강’의 출현 시기가 차이나는 것은 의미·형태 분화가 원인인 듯하다.<sup>9)</sup> 예를 들어 ‘부수-(碎)’는 의미가 분화하면서 형태도 𪎮-(製粉)와 ‘부수-(碎)’로 분화하였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 형태를 유지한 ‘부수-(<부수-)’는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반면에, ‘製粉’이란 새로운 의미를 담당한 ‘𪎮-’는 의미·형태분화가 완성된 20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이처럼 동일한 어원에서 분화된 두 형태는 출현 시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실경’에 비해 ‘살강’이 늦은 시기에 출현하는 것도 ‘실경’에서  $\left\{ \begin{array}{l} \text{실영·시령} \\ \text{사랑·살강} \end{array} \right.$ 으로 의미·형태 분화가 일어났기 때

8) ‘사랑’보다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난 ‘살강’을 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음운변화는 해당 환경에서 일시에 발생하지만 그 규칙은 점진적으로 적용·확산된다. 따라서 동일한 음운 변화라도 표기 환경, 언어 사용자, 문헌의 특징, 시기,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ㄱ’ 뒤에서 ‘ㄱ’이 약화·탈락되는 음운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지역의 방언형이 늦은 시기의 국어사 자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9) 의미 분화에 의해 형태 분화된 단어들은 ‘부수-’  $\left\{ \begin{array}{l} \text{𪎮-} \\ \text{부수-} \end{array} \right.$ 와 ‘꺾-’  $\left\{ \begin{array}{l} \text{꺾-} \\ \text{그치-} \end{array} \right.$ ; 전남 방언 ‘\*마르(마루)’  $\left\{ \begin{array}{l} \text{말레} \\ \text{물레} \end{array} \right.$  등이 있다.(곽충구 1998, 37~68, 위진·손희하 2005, 61~90)

문이다. 그래서 원래의 형태인 ‘실경 < 실영 · 시령’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분화한 형태인 ‘사랑 · 살강’은 의미 · 형태 분화가 완성된 시기부터 나타나므로 원래 형태인 ‘실영 · 시령’보다는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살강’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추정 3>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살강’은 ‘ㄱ’ 약화·탈락 규칙이 생산성을 잃은 후에 새로 합성된 단어로, “\*살+ -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살강은 ‘실경’에서 의미 · 형태 분화한 단어이다.

이러한 추정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언형을 통해, 각각의 단어가 지닌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3.2. 방언 자료에 나타난 ‘살강’

‘살강’에 대한 방언형을 지역별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경 기 도 : 실경(안성), 북시령(과주, 양주), 살광(가평, 양평), 살궁(포천), 살강(광주, 이천, 용인), 살평(여주), 살랑(시흥, 화성, 평택), 사룡(연천, 김포, 고양), 사룡(강화), 사랑(옹진), 선반(남양주)
- 강 원 도 : 살광(화천, 인제, 춘성, 홍천, 횡성, 원성), 실평(양구, 평창, 명주, 영월, 정선-선반으로 변화, 삼척), 실경(철원, 고성, 양양), 선반(양구, 평창, 명주, 정선)
- 충청북도 : 살강(진천, 음성,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살광(중원, 제원), 다나(단양)
- 충청남도 : 살랑(서산), 살강(당진, 아산, 천원, 예산,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대덕, 금산), 등쌍(홍성, 보령)

- 전라북도 : 살강(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고창, 순창, 남원), 선반(옥구)
- 전라남도 : 살강(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산, 나주, 화순, 승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완도), 사랑(영광, 함평, 신안, 무안, 진도), 상실경(광양)
- 경상북도 : 살강(영풍, 예천, 청송), 실경(선산, 성주), 시랑(영양), 살광(울진, 안동), 살강(봉화, 상주, 의성, 금릉, 군위, 칠곡,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 선반(문경), 현반(영덕, 영일)
- 경상남도 : 살강(거창, 합천, 창녕, 밀양,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의창, 사천), 살간(울주, 김해, 양산), 등반(고성), 선반(남해, 통영, 거제)
- 제주도 : 선반, 살래<sup>10)</sup>

‘살강’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유형화하면 ‘살강’형, ‘사랑’형, ‘시렁, 실경’형, 그 외의 단어로 분류할 수 있다.

(7) ‘살강’의 방언형

‘살강’형 : 살강, 살광, 살궁, 살간

‘사랑’형 : 사랑, 사룽, 사룽, 사랑

‘시렁·실경’형 : 실경, 실광, 실강, 시랑

그 외의 단어 : 복실경, 상실경, 선반, 선반, 등반, 현반, 다나, 등상, 살래

먼저 ‘살강’형으로는 ‘살강, 살광, 살궁, 살간’이 있다. 음절구조는  $C_1V_1C_2C_3V_2C_4$ 로, 모두  $C_3$ 가 ‘ㄱ’인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사랑’형에는 ‘사랑, 사룽, 사룽, 사랑’이 포함되는데, 음절구조는  $C_1V_1C_2V_2C_3$ 이다. 이들은  $C_2$ 가 ‘ㄹ’인 공통점을 지닌다. 지역 분포 현황을 보면, ‘ㄱ’을 유지한 ‘살강’형은 중·동부 내륙지역에 넓게 분포한 반면에 ‘사랑’형은 서해안 연안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분포 현황은 ‘실경, 시렁’형과 일치한다. 다만

10) 제주도의 ‘살래(sallae)’는 『한국방언자료집』(1991)의 자료가 아니라 조사자가 직접 서귀포를 중심으로 방언 조사한 결과이다.

‘-ㄱ(-g-)’ 탈락 현상을 ‘실경 > 시렁’과 비교해 보면, ‘살강 > 사랑’이 더 좁은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살강’을 가리키는 또 다른 방언형으로 ‘시렁, 실경’형(실경, 실괘, 실강 시렁)<sup>11)</sup>이 있다. ‘시렁, 실경’형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어형을 쓰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시렁’과 ‘살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뵤실경, 상실경, 선반, 선번, 등반, 현반, 다나, 등상<sup>12)</sup>, 살래’ 등이 있다. ‘뵤실경, 상실경’은 ‘실경’에 ‘뵤(>뵤), 상’ 등의 표지를 앞세워 ‘살강’과 ‘실경’의 의미상 분화를 시도한 형태이다. 그리고 ‘선반, 선번, 등반, 현반’은 한자어 ‘선반(懸盤)’과 ‘살강’을 의미상 구분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단어들이다. 한편 제주도 지역에서는 ‘살강’을 ‘살래’라 부르기도 한다

방언 자료에 나타난 ‘살강’과 관련한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실 4>

전국적인 방언 자료에서 ‘살강’에 대응하는 형태로는 ‘살강’형, ‘사랑’형, ‘시렁, 실경’형 등이 있다. ‘사랑’형은 서부 연안 지역에서, ‘살강’형은 중·동부 지역에서, ‘시렁, 실경’형은 동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특히 ‘시렁, 실경’형을 쓰는 지역에서는 ‘살강’과 ‘시렁’을 구분하지 않는다

본고는 <사실 4>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는 동부 지역에서는 ‘시렁’과 ‘살강’을 구분하지 않고 ‘실경, 시렁’형을 쓴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렁(실경)’과 ‘살강’을 구별하지 않고 ‘시렁, 실경’형으로 통칭한다는 것은 ‘살강’이 ‘실경’에서 분화한 단어라는 본고의 <추정 3>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실경’과 ‘살강’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단어의 의미가 분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

11) 여기서 ‘시렁, 실경’형을 하나의 형태로 묶은 것은 ‘살강, 사랑’형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12) ‘등상’과 ‘다나’는 독특한 방언형이나 어원상 ‘살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처리하였다.

서 파생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시령·실경’형을 쓴다는 것은 ‘실경’이 ‘살강’보다 더 오래된 단어로 ‘살강’이 ‘실경’에서 분화된 단어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한 도구”의 명칭으로 ‘실경’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마루·방’인 경우와 ‘부엌’인 경우를 구별하고자 하여, ‘실경’의 의미가 ‘마루·방의 실경’과 ‘부엌의 실경’으로 분화하였고, 형태도 새로운 의미를 담기 위해 ‘실경, 살강’으로 분화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실경 { 마루·방의 실경 - 실경 > 실영 > 시령  
 { 부엌의 실경 - \*살강 > 사랑 / 살강(후대의 합성어)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변화 과정을 추정해 보면, ‘실경 > 살강’의 변화는 모음조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중세국어에서 ‘·’와 ‘-’는 모음조화의 대립 짝으로, ‘붉- (赤)· 붉- (明)’, ‘늙- (老)· 늙- (黽)’에서와 같이 의미 및 형태 분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실경 > 살강’의 예를 고려하면, ‘실- > 살-’의 분화는 ‘ㅣ’를 ‘ㅏ’로 교체한 것인데 ‘ㅣ’는 중세국어의 모음 중에서 모음조화의 짝이 없는 유일한 모음이다. 그래서 ‘ㅣ’는 모음체계에서 ‘ㅣ’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ㅏ’로 교체하고, ‘-경 > -강’은 ‘ㅣ’의 모음조화의 대립 짝인 ‘ㅏ’로 교체함으로써 음상의 차이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추정 3>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추정 3’>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살강’은 ‘기약화·탈락 현상이 생산성을 잃은 후에 새로 합성된 단어로, ‘\*살+ -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실경’의 의미가 ‘마루·방의 실경’과 ‘부엌의 실경’으로 분화하면서, ‘살강’은 ‘부엌의 실경’의 의미를 담기 위해 ‘실경’에서 형태 분화된 단어이다.

또한 본고가 <사실 4>에서 주목한 두 번째 사실은 ‘살강의 제주도 방언형이 ‘살래’란 점이다. ‘살래’는 ‘시렁’의 중세국어 형태인 ‘실에’를 연상하게 한다. ‘실경’의 중세국어 형태 ‘실에’는 ‘실-’에 명사 파생 접사 ‘-게’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이와 유사한 음절구조를 가진 ‘살래도 ‘살’에 ‘-게’가 결합한 단어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에, 실경’와 ‘살래, 살강’은 동일한 형태 변화와 음운 변화를 거쳐 형성된 단어가 된다. ‘실에’가 소실되면서 ‘실경(>실영>시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듯이, ‘사랑, 살강’도 ‘살래’가 소멸하면서 대체된 형태일 수 있다. 곧 ‘사랑, 살강’의 이전 형태를 ‘살래’로 볼 수 있다. ‘살래’를 제주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주도가 개신교가 쉽게 전파될 수 없는 섬 지역이기 때문이다.

‘살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해 보았다.

<추정 4>

‘살강’은 ‘실경’과 마찬가지로 ‘살래(\*살-+-게) → \*살강 <사랑, 살강(후대의 합성어)>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어이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전남 방언 ‘실경’과 ‘살강’의 어원과 음운론적인 변화 과정을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전남 방언 ‘실경’은 국어사 문헌에 나오는 ‘실영 시렁’의 앞선 형태로, ‘載’를 뜻하는 ‘실-’에 접사 ‘-경’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 ‘실경’은 ‘르’ 뒤에서 발생한 ‘ㄱ’ 약화·탈락 현상의 적용을 받아 ‘실경>실영>시렁’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중앙어 ‘시렁’이 되었다. 따라서 전남 방언 ‘실경’은 ‘ㄱ’ 약화·탈락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고려 후기 이전의 음운 현상

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둘째, 국어사 문헌에서 전남 방언 ‘살강’에 대응하는 형태는 ‘사랑, 살강’이다. 그러나 본고는 19세기 문헌에 나타난 ‘살강’을 ‘ㄱ’ 약화·탈락 규칙이 생산성을 잃은 후에 새로 형성된 합성어로 보았다. 그리고 ‘살강’을 ‘\*살+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살강’은 ‘실경’의 의미가 ‘마루·방의 실경’과 ‘부엌의 실경’으로 분화하면서, ‘부엌의 실경’의 의미를 담기 위해 ‘실경’에서 형태 분화한 단어이다. 곧 ‘실경’에서 ‘살강’으로의 형태변화는 모음체계에서 ‘ㅣ’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ㅏ’로, ‘ㅏ’의 모음조화의 대립 짝인 ‘ㅑ’로 교체함으로써 음상의 차이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넷째, ‘실경’과 ‘살강’은 동일한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이다. 전남 방언 ‘실경’은 ‘실에(실-+-개) → 실경 < 실영 < 시령’으로, ‘살강’은 ‘살래(\*살-+-개) → \*살강 > 사랑, 살강(후대의 합성어)’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본고의 논지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접사 ‘-경/-강’을 상정할 수 있을 만한 확고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방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국문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차자 표기된 문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 주제어 : 전남방언, 실경, 시령, 살강, 어원, 변화 과정

< 참고 문헌 >

- 국립국어연구원 엮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광우(1960), 『국어학논문집』, 일조각.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문화 관광부·국립국어원(2004), 『역사 자료 말뭉치(1998~2003)』, 『21세기 세종 계획 1·2 단계 사업 결과물』.
- 서상준(1984), 「전라남도의 방언분화」, 어학교육 15, 전남대 어학연구소.
- 손희하(2002), 「장성지역어의 음운」, 『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_\_\_\_\_(2004), 「새김 어휘 자료 말 뭉치」, 1.5 판
-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유창돈(1980),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 위진·손희하(2005), 「주거 공간 어휘의 통시적 연구(1) -전남 장흥 지역어 '부 삭, 정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3 집
- \_\_\_\_\_(2005), 「전남 장흥 지역 주거 공간 어휘-말레 물레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36.
- 이기갑(1984a), 「동부 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7.
- \_\_\_\_\_(1986), 『전라남도 언어지리』, 국어학총서 11.
- \_\_\_\_\_(1998), 「전남 방언의 개관」,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_\_\_\_\_(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계문·송하진(1998), 『전남 방언 사전』, 태학사.
- 이기문(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 \_\_\_\_\_(1990), 『국어 음운사 연구』, 국어학 총서 3.
- 이돈주(1966), 「완도지방의 지명고」, 『호남문화연구』 4(전남대).
- \_\_\_\_\_(1978a), 「진도의 방언」, 『호남문화연구』 10(전남대).
- \_\_\_\_\_(1978b),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 이상규(2000), 『경북 방언 사전』, 태학사.
- 이승녕(1961), 「국어조어론고」, 을유문화사.
- 이승재(1998), 「기약화·탈락의 통시적 고찰」, 『음운 II』, 태학사.
- 이진호(2003), 「음운론적 시각에서 본 중세국어 합성어의 긴밀성」, 『진단학보』 제95 호

전광현(2003), 『국어사와 방언 1, 2, 3』, 월인.

최명옥(1997), 「국어의 통시음운론 개관」, 午樹 田光鉉·宋敏 先生の 華甲을 기념하여 『국어사 연구』, 태학사.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최창렬(1993),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순탁, 이돈주(1965), 『거문도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 3집.

K C I

[Abstract]

## A Phonological Analysis of Jeollanamdo Dialect: syilgəŋ and salgəŋ

Wee Jin · Son Heuih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tymology and phonetic changes of Jeollanamdo dialect, *syilgəŋ*(a wall shelf) and *salgəŋ*(a kitchen shelf). For this purpose, I looked over the ancient books of Korean language history in diachronic method and referred to dialect data in synchronic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eollanamdo dialect *syilgəŋ* corresponds to *syirəŋ* or *syihəŋ* according to the ancient books of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orresponds to *syilgəŋ* or *syirəŋ* on dialect data. I concluded that *syilgəŋ* was deriv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root of ‘*syil*- (load)’ and suffix ‘-*gəŋ*’. *Syilgəŋ* was transformed into *syihəŋ* or *syirəŋ* according to ‘- $\neg$ (g)-’ deletion rule which was applied among voiced sounds. Therefore, Jeollanamdo dialect *syilgəŋ* is previous form before ‘- $\neg$ (g)-’ deletion rule was applied(which was happened in late Koryo period.).

(2) *Salgəŋ* corresponds to *sarəŋ* or *salgəŋ* according to the ancient books and dialect data. *Salgəŋ* is deriv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root of ‘*sal*-’ and suffix ‘-*gəŋ*’. I presumed *salgəŋ* was compounded after ‘- $\neg$ (g)-’ deletion was completed because *salgəŋ* was appeared later than *syiləŋ* on the ancient books.

(3) I proved that *syilgəŋ* and *salgəŋ* have been changed into different phonetic forms from the same pedigree in order to distinguish meanings.

According as the meaning of *syilgəŋ* was diversified as ‘a wall shelf’ and ‘a kitchen shelf’, *salgang* was derived from *syilgəŋ* as a form of taking charge of ‘a kitchen shelf’. Also I investigated the process of phonetic changes on *syilgəŋ* and *salgang*. /ɲ/ of *syilgəŋ* was changed into /a/ which was the farthest from the vowel system for hearing effects and /ə/ was changed into /a/ for the vowel harmony.

**Key words** : Jeollanamdo dialect, *syilgəŋ*, *syirəŋ*, *salgang*, etymology, phonetic change

K C I